

전주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시 발전사업 제안 아이디어 접수 · 인구정책 제안 · 반값 생활비 아이디어 공모

전주시가 민선 6기 출범 이후 시민은 시청으로 들어오고, 시청은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전주시 발전사업 발굴과 인구정책 수립, 도시재생 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인 100대 국정과제를 접목한 전주시 발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시민들의 사업제안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

접수된 제안들을 창의성과 경제성, 실용성 평가와 실무부서의 검토, 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전주만의 인구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전주형 저출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전주시 인구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혼인장려 방안과 임신·출산 장려 정책,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사회구현 대책, 양육 및 보육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반값 생활비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의류와 주거 공간, 차량 공유, 공동육아 등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모으는 '반값 생활비'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

고,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원도심 재생 관련 공동체 활동사업 접수도 받을 계획이다.

나아가, 전라감영과 생태동물원, 차 없는 사람의 거리 등 주요현안과 정책의 시작 단계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언론, 시의원 등이 참여해 지혜를 모으는 '나올마당'과 시민원탁회의도 열고 있다.

또, 청년정책을 지역 청년들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청년희망단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승수 시장의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복지정책으로 떠오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밤상'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밭에 보내는 엄마의 마음', 폐지수거 어르신을 돕는 '희망줍는 손수레' 사업 등도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마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웃을 돌보고 동네문제를 해결하는 전주형 동네복지도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전주시 전체 33개 동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반대로, 전주시는 제1호 현장시청인 한옥마을사업소와 기업지원사무소, 한문화지원사무소, 전통시장육성지원사무소, 전주푸드지원사무소, 제6호 서노송예술촌사무소에 이르기까지 현장시청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 나섰다. /인재용 기자

비과세 부동산 전수조사로 세금탈루 방지

전주시, 지방세 세원발굴 세무조사단 운영

전주시가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탈루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시는 세금감면을 받은(비과세)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할 지방세 세원발굴 세무조사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감면목적의 용도에 일정기간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매각하는 사례가 많아 지방세법상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시는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40일 동안 지난 3년간 감면 받은 부동산 등 소유재산 9,930건(961억원)에 대해 유예기간 내 매각 행위와 고유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감면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적발하면 감면금액에 가산세를 추가해 추징, 세원누락을 없애고 '일단 감면받고 보자는 식'의 부조리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 상반기 목적 외 사용 및 과소신고 납세자 등 150건을 적발해 약 20억원을 추진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청년정책 만들 역량 기른다

'거버넌스 활성화 위한 청년역량강화교육' 실시

전주시는 지난 19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제2기 청년희망단 지인자를 포함한 전주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청년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에 출범할 전주시 청년정책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 2기 지원자들의 원활한 청년활동을 위해 시장참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2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 전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청년지원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전주시는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 앞으로 지역청년이 시장참여에 필요한 지식을 꾸준히 얻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는 현재 2기 위원을 공

전주시의회-라마다전주 호텔 체류 관광객 유치 협약 체결

전주시의회와 라마다전주 호텔이 지난 18일 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명지 의장과 박경희 호텔 사장 등 양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이 전주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시의회는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의 라마다전주 호텔 이용을 권유하고 라마다전주 호텔은 사용자 할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의 문화·관광 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건전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의회와 라마다전주 호텔은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정책들, 국·내외서 우수성 인정받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문화 활성화 최우수상 · 청년문제해소 우수상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최근 국·내외에서 잇달아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 청년문제해소 분야에서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의 경우, 이동형 갤러리 '꽃심'과 손으로 만들고 보는 지붕 없는 공연장, 예술 있는 버스승강장 운영 등 그간 추진해온 '지붕 없는 미술관·공연장 프로젝트'를 소개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청년문제해소 분야에서는 청년정책 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 운영과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을 수

상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일자리 분야 최우수상과 지난해 사회적경제와 소식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해마다 정책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으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롤모델로 급부상했다.

전주국제영화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영화비평지이자 미국 영화 전문매체인 '무비메이커(Movie

Maker)'가 최근 소개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25개 영화제'에서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또한, KTX 등 기차를 타고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한 전주역 앞 커피종결 조성사업을 통해 최근 도시경관 분야 최고의 국제상인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세계배낭여행자들의 지침서로 통하는 여행잡지인 '롤리플래닛'이 선정한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10대 도시' 중 3위로 선정됐으며, 이 내용이 세계적인 뉴스채널인 미국 CNN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서 귀가 여성에 음란행위 남성 추적중

전주시 한 대학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하고 도주한 남성을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덕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대학로에서 어떤 남성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한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는 도중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던 남자를 마주쳤다"며 "놀라서 도망쳤다"고 말했다.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현장 일대를 수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남성을 추적중이다. /이상민 기자

만취한 채 배 운전 오징어잡이 선장 검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았다가 해경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8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만취한 채 배를 몰고 들어온 22급 오징어잡이 선장 A씨(60)를 주취운항(해상안전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을 출발해 전북도 서해상에서 오징어를 잡다가 선박 수리야 연료 보충을 위해 비응항에 입항 중 검문에 나선 해경에 혈중알콜농도 0.197% 수치로 적발됐다.

모터보트와 같은 레저기구 음주운항 행위로 적발되고 있다.

이달 3일 오전 7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서쪽 약 2km 해상에서 B씨(43)가 혈중알콜농도 0.032%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해상에서 검문 중인 해경에 단속됐다. /군산=장 현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